

주안에서 사랑하는 김성철목사님과 광주동광교회 성도님들께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요즘 저희 교회에는 질병으로 고통하는 분들이 많아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리더인 콘스탄틴 형제의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몸의 일부분이 마비되었고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저는 꽃을 사서 콘스탄틴 형제와 함께 병원을 심방해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심방이후에 콘스탄틴 형제의 어머니께서 얼마 후에 퇴원을 하시고 재활치료를 받게 된 것입니다. 콘스탄틴 형제의 어머니는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으시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을 갖게 되시길 기도합니다. 세르게이 전도사의 어머니는 얼마전에 자궁암 수술을 하셨습니다. 수술전부터 매일 세르게이 전도사의 어머니를 위해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수술은 잘 끝나서 일반 병실로 옮겨서 회복하고 계십니다. 세르게이 전도사와 함께 암병동에 심방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세르게이 전도사의 어머니는 독실한 러시아 정교회 신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건강을 회복케 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받았던 아기 미하일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감사하게도 잘 치료가 되었습니다. 미하일의 엄마인 비까 자매가 두 번째 아이를 임신중인데 하나님께서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지켜 주시길 기도합니다.



세르게이 전도사 어머니와 함께

한국역사문화연구회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던 마리아 자매가 얼마전부터 개인적으로 한국어 공부와 성경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마리아 자매는 극동 연방대학교에서 석사과정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고려인의 역사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석사논문을 그 주제로 쓰려고 준비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좋은 제자로 자라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마리아 자매와 함께

8월 마지막주에 광주동광교회 김성철목사님과 최선희사모님과 강성군전도사님께서 러시아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전쟁중이라서 오고가는 길이 많이 불편한 가운데에도 어려운 길을 거쳐서 선교지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곳은 코로나 이후로 한국의 선교팀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길을 광주동광교회에서 찾아주셔서 저희는 크게 감동하였습니다. 저희는 독립운동유적지를 돌아보며 우리의 선조들이 얼마나 힘들게 나라의 독립을 위해 애썼는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화요일에는 재활센터를 방문하여 한국에서 가져오신 선물과 과일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요한일서 말씀으로 설교를 하며 믿음으로 승리자의 삶을 살도록 권면했습니다. 설교 후 몇 형제 자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리더인 악산나는 지난달 우리가 찾아왔을 때 더 많은 이들이 재활센터에 올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많은 이들이 오게 되었다고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마약 중독자로 살다가 14층에서 떨어져 죽을 상황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형제의 간증을 들었는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선교팀과 재활센터에서

수요일에는 선교팀으로 오신 김성철 목사님을 모시고 특별 집회를 가졌습니다. 김성철 목사님은 누가복음 16장 1-9절을 본문으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예수님의 양무리를 먹이고 섬기는 것 그리고 연락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돕는 것이 바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영광교회가 해왔던 것처럼 더욱 열심히 전도하며 제자양육에 힘쓰고 노숙자 급식과 중독자 재활센터를 섬기는 일을 하고자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세르게이 전도사는 이 집회에서 간증을 하였습니다. 이 형제는 목적이 없이 살아가던 자신을 영광교회로 인도하시고 성경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 은혜를 증거했습니다. 세르게이 전도사는 현재 어린이 예배와 노숙자 무료급식 사역을 충성스럽게 섬기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신학교 공부를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인내심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길 기도합니다.



수요 특별집회

노숙자 무료 급식 사역은 저희의 사역을 유심히 지켜보던 무슬림인 마지나 자매와 그녀의 남편이 동참하고 싶다고 해서 금요일에 빵과 초콜렛 등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함께 자원봉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제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8월에는 금요일 마다 비가 많이 왔는데 형제들이 폭우가 내리는 상황속에서도 열심히 노숙자들을 섬겨서 감사했습니다.

정경선 선교사는 3년 임신거류증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10월 이전에 3년 임신거류증을 받아서 안정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장남 인우가 새 직장애 잘 적응하며 믿음의 자매를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기도해주세요. 둘째 수진의 직장생활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가정과 영광교회와 사역을 위해서 늘 기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 제목>

1. 전쟁이 속히 끝나고 러시아 땅에 평화가 찾아오도록, 러시아가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2. 블라디보스톡 영광교회가 제자를 양육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사회적 약자들을 섬기는 교회,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3. 매주 금요일 노숙자 무료 급식, 중독자 재활 센터 섬김 사역을 통해서 복음과 주님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도록
4. 수요일 가정 그룹 모임, 목요일 선교사 및 사역자 학교, 토요일 교회 리더 모임을 통해서 성도들과 리더들을 잘 양육하도록
5. 세르게이 전도사의 신학 공부, 운전면허 획득, 믿음의 배우자, 어린이 예배를 잘 섬기도록
6. 황돈연 선교사 건강과 러시아어 설교, 정경선 선교사 임신거류증, 아이들(인우, 수진) 직장생활과 믿음의 결혼을 위해서